



광주시, 중독폐해 예방 연합 캠페인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3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광장에서 ‘2025년 중독폐해 예방 연합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5개 자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전남도 박문제예방치유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알코올·도박·마약 등 중독예방 OX퀴즈 △음주고글 체험 △중독예방 문구 스티커 만들기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지와 숨은그림 찾기 △도박문제 인식퀴즈·행운박스 △아동·청소년 대상 십자말풀이 퀴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소방, 온열질환 대비 ‘폭염구급대’ 운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폭염구급대’는 구급차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체온계 등 온열질환 응급처치 장비를 상시 비치해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친다. 구급차 33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방안전본부는 관할 내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펌플런스’ 27대를 예비 출동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펌플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구급 활동 기능을 갖춘 소방펌프차로, 구급차가 없을 때 출동해 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소방안전본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도 완료했다. **정성아 기자**



건협 광주전남지부, 찾아가는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2일 광산구더불어樂노인복지관 회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뇌파·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와 1:1 맞춤형 건강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평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온열질환 예방 현장 점검

광주고용노동청이 여름철을 앞두고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방문해 폭염 및 화재 예방 실태점검과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의 폭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아울러,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정련공정 및 가류공정 공정 등을 방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주요 공정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화재 감지 및 진압 설비의 작동 상태, 비상대피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가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경총, 강운태 전 시장 초청 금요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지도자의 길,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제1688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강 전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생명의 근원, 우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세계를 빛낸 인권기록 △시민 자치공동체 실현 △지도자의 핵심 키워드 △간구속에 이루어진 사례 △직업(일)은 삶의 영양소 △봉사는 받는 것이 훨씬 크다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강운태 전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해 지방화와 세계화를 결합해 한국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새로운 차원의 선구적 문화 활동의 모델이 됐다”면서 “행정과 정치의 중도적 입장을 견지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전 직원 ‘양과 사주기 운동’ 전개

전라남도는 2025년산 양과 도매가격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12일 도청 직원 ‘양과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사진)

기상 호조로 품질 좋은 양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양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5kg, 600망, 3톤 공동구매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중앙회 등 단체에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전남도는 농협 전남본부,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소비촉진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온실가스 협약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온실가스 감축 시범 연구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매립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상호 호호적 교류를 바탕으로, 간이소각기 및 자동개폐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시범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매립가스 관리 정보의 공유 및 활용 △온실가스 감축 시범연구를 위한 기술·설비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환경공단 김병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원순환기술연구소 연구분석처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매립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NDC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기념식은 위탁부모와 아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위탁가정, 동행하는 아이행복’을 주제로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감사패가 수여됐다. △광주광역시장 표창(5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표창(5명)·감사패(1명) △광주광역시교육감 표창(2명)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4명) 등이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홍보영상도 상영됐다.

2부에서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됐다.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등이 이뤄져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현재 광주에서는 약 300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전문 아동보호비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탁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시는 위탁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육군 제31사단, ‘제57주년 예비군의날 기념식’ 개최

육군 제31보병사단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과 공동주관으로 지난 13일 전남 화순 하니움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제57회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제공**